

온 회중이 상호 의존하는 교회

(Interdependence of the congregations)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4-35)

우리는 어떤 대상의 일부만 보고, 겉모습만을 보고 쉽게 그 대상을 판단합니다.

내가 본 것에 한정해서, 내가 들은 것에 국한해서 판단한 후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들을 통해서 접하는 대형 교회들의 비리, 몇몇 교회들의 교회 세습, 일부 목사들의 타락한 언행 등등 이런 소식을 접하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교회는 원래 그래, 목사들이 다 그렇지 찻찻...” 하며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세상에 교회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그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앞으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런 저런 많은 말들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세상이 정말 보아야 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참된 교회라면 마땅히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징표는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34-35)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처음부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며, 마지막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여러 차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실지, 어떻게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실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는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 이 땅에 남겨져 살아갈 제자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이 세상을 향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16장에서 제자들에게 그가 죽임 당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마지막 당부 말씀의 전체를 보여주는 Preview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확실한 징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부족한 모습, 성도들의 미성숙한 모습, 교회 지도자들의 실패한 모습들을 보며 교회를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세상이 교회의 본질적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세상이 교회의 어떤 모습,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가 참된 교회 (Authentic Church), 참된 제자 (Authentic Disciples)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자랑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게 하는 요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연출된 한편의 뮤지컬과 같은 흥미있는 음악과 조명, 그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과 기분 좋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설교로 구성된 예배가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이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정”이란 정서가 있습니다.

이웃을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 좋은 친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빌려줄 여가가 되고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안아줄 넉넉한 가슴이 되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사람들도 하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참된 제자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세상도 할 수 있는 서로 사랑과, 세상은 흉내내지 못할 교회와 제자들만의 다른 차원의 서로 사랑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세상과는 달리 우리에게서 분명한 “서로 사랑”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교회안의 참된 성도들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월절 전에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 13:1)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람들,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 한없이 쏟아붓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기준이 되십니다. 그 분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의 기준이 없지만,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세상은 자기의 관점과 기준만큼만 사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변함없는, 한없는, 그리고 끝까지 쏟아부어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랑은 결코 사람에 따라 다른, 주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랑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는 철저하게 신적 사랑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기준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새 계명”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계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일 2:7)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계명은 새로 만들어지거나, 새로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계명은 옛 부터 주어진, 변하지 않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고, 이미 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막 12:28-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 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 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이 지금 주님을 찾아 온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신명기 6: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바로 그 계명을 말씀하신 후 이에 덧붙여 레위기 19: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가장 오래된 계명인 모세의 계명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시고 계신 이 계명이 Brand New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받았지만,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던 바로 그 계명을 “새롭게”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 계명”이란 “New covenant”가 아니라 “Newly defined covenant”라는 말씀, 즉 새롭게 정의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터툴리안은 2세기 카르타고 출신이며 로마의 변호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죽음 당하는 순간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방인들이 얼마나 놀랍게 보았는지를 기록한 글이 남아 있습니다.

‘보라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였는지, 저들은 아무 때나 서로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기로 준비되어 있었다. (See how they love one another!... how are they ready even to die for one another!)’

그의 증언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줄 알리라”는 이 말씀을 얼마나 실제의 삶으로 살아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무 때나”, “서로를 위하여”,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 이라고 터틀리안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묘사합니다. 세상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좀 오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 때나”, “서로를 위해”,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는가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 정도로 놀랍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사실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 주는 데 좋은 방법은 가끔씩 약간 정도를 넘어선 사랑, 약간 오버가 가미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이 얼마나 가까운지, 내가 이 정도 사랑을 표현할 정도로 상대방과 가까운지, 혹시 내가 사랑을 표현하면 되려 내가 무안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이런 것을 따지면서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랑” 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으로 부터 우러나오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고, 새로운 계명으로 받은 바로 그 사랑을 주저없이 행할 때,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의 첫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살전 2:8).

바울의 이 표현이야말로 정말 오버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 밖에 없는 목숨을 남을 위해 주기를 “즐거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에게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S.H.I.N.E 비전의 세번째 비전은 “온 회중이 상호의존하는 교회”, (Interdependence of the congregations) 입니다.

우리는 1세대와 다음 세대, 한어권과 영어권, 유학생/연수생과 교민 등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다양한 회중 (congregations)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의존 (interdependence)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돌보고,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지체에게 달려가고, 외로운 학생들과 연수생들에게 형과 누나,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줍니다.

이와 같은 상호 의존의 관계가 바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S.H.I.N.E 비전의 세번째 “온 회중이 상호 의존하는 교회” (Interdependence of the congregations)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호의존하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Cell Bible Study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는 어떤 대상의 일부만 보고, 겉모습만을 보고 쉽게 그 대상을 판단합니다. 내가 본 것에 한정해서, 내가 들은 것에 국한해서 판단한 후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들을 통해서 접하는 대형 교회들의 비리, 몇몇 교회들의 교회 세습, 일부 목사들의 타락한 언행 등등. 이런 소식을 접하면 세상 사람들은 쉽게 “교회는 원래 그래, 목사들이 다 그렇지 쫓쫓...” 하며 교회를 비판합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세상에 교회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진정한 공동체의 특징을 살펴 보겠습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확실한 증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 13:34-35)
2.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랑은 세상과 다르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 합니다. 요 13:34-35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고,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을 만나 대화하시는 장면이 막 12:28-33절에 나옵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 이 말씀(막 12:28-33절)은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이라는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고-신 6:5, 레 19:18). “서로 사랑”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사실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 봅시다.
5. 터툴리안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보라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였는지, 저들은 아무 때나 서로를 위하여 생

명을 버리기로 준비되어 있었다. (See how they love one another!... how are they ready even to die for one another!)’ 이러한 사랑이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6.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살전 2:8)? 바울이 이렇게 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셀 식구들을 돌아보며, 우리 셀 모임에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에 감사하고, 더욱 예수님 닮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봅시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S.H.I.N.E 비전의 세번째 비전은 “온 회중이 상호의존하는 교회”, (Interdependence of the congregations) 입니다. 우리는 1세대와 다음 세대, 한어권과 영어권, 유학생/연수생과 교민 등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다양한 회중(congregations)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의존 (interdependence) 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돌보고,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지체에게 달려가고, 외로운 학생들과 연수생들에게 형과 누나,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줍니다. 이와 같은 상호 의존의 관계가 바로 우리 교회가 이루어야 할 S.H.I.N.E 비전의 세번째 “온 회중이 상호 의존하는 교회” (Interdependence of the congregations)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호의존하며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진정한 교회, 진정한 공동체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이러한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